

타이거즈 ★찬호 “동료 믿고 가을 준비한다”

울스타·예비FA·내야 사령관...
수식어도 많은 KIA ‘임시 주장’
막중한 책임감에 ‘잠 못드는 밤’

잇따른 부상으로 부침 꺾지만
기회 잡은 선수들 덕분에 반등
다치지 않고 팀 승리 위해 최선을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박찬호가 또 다른 빛나는 순간을 꿈꾼다.

올 시즌 KIA 타이거즈 박찬호 이름 앞에는 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내야 사령관’, ‘예비FA’, ‘임시주장’ 그리고 ‘울스타 베스트 12’가 올 시즌 박찬호를 설명하는 단어가 됐다.

주전 유격수로 내야를 이끄는 그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다. 팀에 부상이 이어지면 서 유니폼에 주장을 상징하는 ‘C’도 달았다. 주장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빠진 뒤 임시 주장 김선빈까지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박찬호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박찬호는 지난 23일 발표된 2025 KBO 울스타전 베스트 12 나눔 울스타 유격수 부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박찬호는 팬투표(93만7896표), 선수단투표(141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최형우(지명타자), 김도영(3루수)과 ‘베스트 12’에 선정됐다.

늘어난 수식어만큼 박찬호의 책임감도 커졌다. 특히 ‘임시 주장’은 박찬호에게 불면의 밤을 안겨줬다.

박찬호는 “주장 해보고 싶었는데 정식 주장은 못할 것 같다. 내가 아직은 그릇이 아니다”며 “잠을 못 잔다.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팀이 지면 나 때문에 진 것 같다. 동생들이 많다. 내가 형우 선배처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기까 힘은 게 있다. 감독님도 야구장에서 결과를 내는 것을 기대하셨는데 결과가 안 오니까 힘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개인 성적보다는 팀에 대한 생각에 고민이 많았다.

박찬호는 “최근에는 공을 만들 때 때린다. 야구라는 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타격이 나오고 있고, 운도 따르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애버러지가 나오는 타자라고 생각한다. 작년보다 못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타율이 안 좋았을 때도 이 성격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다. 하지만 내가 못 하는 데 팀이 지면 화가 난다. 이 경기를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잡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설명했다.

박찬호는 동료들을 믿고 결실의 가을을 준비하고 있다. 박찬호가 가장 믿는 구석은 ‘마운드’다. 부진



KIA 타이거즈 부상 위기에서 ‘임시주장’을 맡은 박찬호가 기회를 얻은 동료들의 반전 활약에 웃고 있다. 박찬호는 팀 승리를 목표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을 겪었던 불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의리의 복귀도 준비되는 등 선발전의 힘은 여전하다.

박찬호는 “투수들이 정말 크다. 초반에 좋지 않기도 했지만 너무 잘 던져주고 있다. 요즘은 투수들 덕분에 이긴다”며 “(성)영탁이 역할이 크다. 영탁이가 오면서 (전)상현이, (조)상우형이 부담해야 할 것을 나눠서 해주고 있다. (김)도현이는 공에 힘이 있고 구종도 다양하다.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구종을 쓸 수 있다. 좋은 투수다”라고 마운드를 이 야기했다.

하위 타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타자들의 활약도 반갑다.

박찬호는 “(김)도현이 형과 (김)규성이의 활약이 정말 크다. 나는 평범하게, 원래 하는 선수인데 밑에서 점수를 내주고 앞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 이게 원래 우리가 했던 야구다”라고 말했다.

각별한 후배 오선우는 이제 확실한 카드로 말한다.

박찬호는 “다들 재미있게 야구하고 있다. 선우는 하루 종일 야구이야기만 한다. 본인도 인정했는데 언제 야구에 집중할 것인가 궁금했던 선수다(웃

음)”며 “방망이 재능은 정말 좋다. 재능 자체가 크다. 밑에서 좌중간을 넘기는데 내가 (당겨서)치는 것보다 더 멀리 친다. 타격 사이클이 떨어졌을 때 많이 공금했다. 누구나 사이클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짧게 끊고 올라오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주전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다. 힘이 있어야 일어나는 데 얼마 안 가서 다시 잡혔다”고 말했다.

또 “선우는 자신의 것이 생겼다. 이제는 확실한 선수다. 그런 친구들이 아직도 있을 것이다”고 능력있는 후배들의 등장을 기대했다.

분위기를 이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상 관리다. 부상으로 위기를 맞았던 KIA는 공교롭게도 부상 상황에서 성장한 선수들의 활약으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찬호는 “부상은 안 좋은 것이지만 누군가 다쳐야 기회가 생긴다. 다치면 누가 들어가서, 자리를 뺏기게 되는 것이다. 나도 감독님이 선수 때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기회를 얻었다. 누구나 시작은 그랬다”며 “건강하게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 아사니 20R ‘베스트 11’ 선정

1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친 광주FC의 아사니(사진)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아사니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4일 발표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 ‘베스트 11’ 명단에서 송민규(전북), 이승원(김천), 이상현(강원)과 함께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아사니는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10분 헤이스와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0분 오른쪽에서 헤이스에게 공을 넘긴 아사니는 문전으로 달려들었고, 헤이스의 컷백을 원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시켰다. 공이 대전 골대를 뚫으면서 아사니는 시즌 5호골과 함께 선제골을 장식했다.

아사니는 승부가 1-1 원점으로 돌아간 후반 26분에는 박인혁에게 공을 넘겨 도움도 기록했다. 1골 1도움의 활약에도 아쉽게도 승리의 주역까지 되지는 못했다.

후반 33분 골키퍼 노화동의 패스 미스로 광주 박스에서 대전 아르난데스가 공을 잡았고, 패스



를 받은 구택이 멀티골에 성공하면서 경기는 2-2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한편 20라운드 MVP는 강원FC 모재현의 차지가 됐다. 모재현은 21일 진행된 대구FC와의 홈경기에서

1골 1도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3-0 대승을 이끌었다.

뜨거운 공격으로 무실점 승리를 거둔 강원은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모재현과 함께 이상현(MF), 강투지(DF), 박정호(GK) 등 4명의 강원 선수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베스트매치는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서울의 경기가 꼽혔다.

이날 경기에서 서울이 전반 24분 류재문의 선제골로 앞서나갔지만 전반 추가 시간 전북 송민규가 돌파에 이은 중거리 슈팅을 날리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 벤치’ PSG, 클럽 월드컵 16강 진출

이강인이 벤치를 지킨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조 1위를 차지하며 16강에 올랐다.

PSG는 24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루멘 필드에서 열린 2025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B조 최종 3차전에서 시애틀 사운더스(미국)를 2-0으로 제압했다.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던 PSG는 이번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로 승점 6을 쌓아 B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PSG는 이번 대회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를 4-0으로 완파한 뒤 20일 보타포구(브라질)에 0-1로 밀미를 집혔으나 최종전 승리로 조 1위를 차지했다.

이날 패배로 3연패를 당해 승점을 하나도 쌓지 못한 시애틀이 조 최하위에 그친 가운데 보타포구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PSG와 같은 승점 6으로 조별리그를 마치면서 이들 팀 간 맞대결 전적을 따져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조 1-2위 팀이 16강에 진출하며, 두 팀 이상 승점이 같을 경우 그 팀 간의 맞대결 전적을 따져 순위를 가린다.

세 팀은 상대 전적에서도 각각 1승 1패(승점 3)로 같았고, 결국 맞대결 골 득실에서 +3으로 가장 앞선 PSG가 1위, 0을 기록한 보타포구가 2위, -3에 그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위가 됐다.

PSG는 과거 소속 선수로 활약했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앞세운 A조 2위 인터 마이애미(미국)와 30일 16강전에서 만난다.

16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후반 교체로 출전해 3-0으로 앞선 추가시간에 페닐티킥으로 쐐기 골을 터뜨리고 보타포구와의 2차전에서 교체로 출격했던 PSG의 이강인은 이날은 벤치를 지켰다.

시애틀 소속의 중앙 수비수 김기희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라운드는 밟지 못했다.

/연합뉴스

PGA ‘메이저급’ 로켓 클래식 26일 개막...한국인 성적은?

안병훈·김시우·김주형 출전
장유빈, LIV 최고 성적 도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로켓 클래식(총상금 960만달러)이 26일부터 나흘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골프클럽(파72·7370야드)에서 열린다.

올해 PGA 투어는 지난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을 끝으로 예정된 시그니처 이벤트를 모두 마무리했다.

한 시즌에 8차례 열리는 시그니처 이벤트는 총상금 2000만달러 규모의 ‘특급 대회’로 4대 메이저 다음 등급에 해당한다.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남은 대회도 7월 디오포나뿐이다.

7월 말까지 정규시즌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가 시작되는 만큼 2025시즌 PGA 투어도 막바지에 들어선 셈이다.

지난해까지 로켓 모기치 클래식이라는 명칭으로 열린 로켓 클래식에는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 김시우, 김주형이 출전한다.

안병훈은 지난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공동 14위에 올랐다.

6월에 치른 대회 가운데 US오픈에서는 컷 탈락했지만, 캐나다오픈 공동 6위와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공동 14위 등 흐름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장유빈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대회 도중 허리 통증을 이유로 기권한 김시우는 2022년 이 대회 공동 14위에 오른 경력이 있다.

김주형은 2월 AT&T 페블비치 프로암 공동 7위 이후 거의 5개월 만에 ‘톱10’을 노린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3라운드에 한 명도 나가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로는 5위 콜린 모리카와, 7위 키건 브래들리(이상 미국) 두 명이 나온다.

브래들리는 지난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올해 9월 라이더컵에서 미국 대표팀 단장을 맡은 브래들리는 라이더컵 포인트 순위 9위가 됐다.

8월 BMW 챔피언십이 끝난 뒤 라이더컵 포인트 순위 상위 6명이 미국 대표로 라이더컵에 필 자격을 얻는다.

1986년생 브래들리가 올해 라이더컵에서 단장 겸 선수로 뛰면 이는 1963년 아널드 파머(미국) 이후 첫 사례가 된다.

2021년과 2024년 이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캠 데이비스(호주)는 올해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2022년 LIV 골프 출범 때 LIV 골프에 진출했던 제임스 피오트(미국)가 스폰서 초청 선수로 나온다.

미시간주 출신인 피오트는 2022년 6월 US오픈 이후 3년 만에 PGA 정규 투어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로켓 클래식과 같은 기간에 LIV 골프는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대회를 연다.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의 마리오 골프클럽(파72·7533야드)에서 열리는 LIV 골프 델러스(총상금 2500만달러)는 2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장유빈이 2월 호주 대회 공동 23위인 자신의 시즌 최고 성적 경신에 도전한다.

장유빈은 올해 LIV 골프에서 상금 95만9047달러(약 13억1000만원)를 벌었다. 이미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상금왕에 올랐던 액수(11억2904만원)를 넘겼다.

/연합뉴스